

칼럼

김호경 뉴시스 사회부장



② '김광석 부녀 살해범', 위태로운 추론

경찰 초동수사에 부실했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목이 쏠린 저명인사의 죽음을 놓고 일부라도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 목에 줄이 감겨 죽은 망자의 사인이 의살인지 교살인지 들여다보는 것은 검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집안 및 부검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부검의가 "어무래도 이상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었다면 검찰 지휘 하에 당연히 이를 토대로 김씨의 재산을 노린, 또는 지점에 얽힌 타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가까운 주변 인물부터 용의선상에 올렸을 것이다.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검에서 이렇다 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영화에서는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 검사, 의사가 모두 한통속이 돼 짜고 서씨를 도와서 살인사건을 감했다? 타당성이 극히 희박한 설정이다.

시신부검에서 타살의 특이점이 안 나왔다면 심리부검은 어떻게,

이 기자가 김씨의 일기장을 들고 찾아간 심리부검 전문가는 "만약 김광석씨가 자살했다면 자살을 촉발시킬만한 방아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일기장 내용을 다 검토하고 나더니 "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일말의 의문 제기는커녕, "(김광석씨가) 한참 전부터 굉장히 불안정했네요"라며 "제가 봤을 땐 그냥 자살하신 것 같다. 전형적인 자살 심리 패턴이 일기장에 나타난다"라고 전문가적 확신을 갖고 이유를 설명한다. 다큐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동떨어진 이 장면이 왜 삽입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심리부검 전문가의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김씨가 부인의 불륜 등으로 인해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은 자간의 사정은 파악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자살의 개인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점이다. '부인 때문에 죽었다(복수물)'는 추론은 성립될 수 있어도 '부인이 죽었다는 논리는 구성이 안 된다.

앞에서 필자도 '섬뜩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다큐가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서씨의 성격은 비정상, 나아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중요한 지점이 '영아살해'를 했다는 대목이다. 서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살려 이를 속인 채(본인의 주장은 다르다) 결혼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게 때때로 크게 의미 있는 팩트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인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에 얻은 9개월 아이를 낳아 죽였다. 명백한 영아살해였다"라고만 내레이션을 하곤 곧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한바탕 언급으로 끝이다. 영아살해라는 단어를 깜짝 놀라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던 필자는 이 밀도 없는 쪽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시택 식구들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남편과 불화가

심한 부인이 시택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충돌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감정적으로 거칠어지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거나 희귀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크린으로 목격되는 광경은 물론 추하지만 집안의 분류가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여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집안 내에서 서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화는 서씨 사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영이 없다. 양쪽 입장을 다 제시하면서 관객이 판단토록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균형으로나 실질적 균형으로나 형평성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시중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

서씨가 시아버지와 다투는 통화 내용은 전체 통화 중 특정 부분이 취사선택된 것일 텐데, 그럼에도 서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앞에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느라" "인연을 끊자면 서요? 인연을 끊자는 게 무슨 얘기세요?"라고 시아버지에게 따지는 대목을 들으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이고 어느 쪽을 두둔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죽고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야 하는 여자가 거액의 재산을 시택이 갖느냐, 내가 갖느냐를 놓고 심한 갈등과 대립을 빚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이기고 시택과는 원수지간이 된 스토리. 살인이라는 요소를 빼제하면 아해가 첨예하게 엮일리는 유산 다툼으로 귀결된다.

社說

'실업률 역주행' 잡아야 한다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선진 각국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OECD 내에서 유독 한국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대비된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9%로 상승한 뒤 2015년 3.6%, 2016년 3.7%까지 올랐다.

OECD 내에서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 뿐이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 2015년 5.7%,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터키의 최근 4년간 실업률은 8.7%→10%→10.3%→10.9%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위기 여파를 떨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률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OECD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역주행' 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 이같은 실업률 역주행 추세가 바뀔지 주목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터널 운행시 안전 운행 습관화 해야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터널 안을 통과할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습관적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터널 안은 탁 트인 도로와 달리 시계가 갑자기 좁아져 앞차와의 차간 확보가 쉽지 않고, 시물 식별능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화물차 적재합에서 떨어져 정리되지 않은 낙하물이라든지 차량고장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경우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사고 위험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터널 안을 알지르기 급

지장소,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여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상태 운전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그만큼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또한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터널 안을 통과할 경우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우리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터널화재 사전예방을 위한 터널내 관련기관에서는 비상상황 대비 방재관리 강화 등 방재의식 고강해야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119 안심 콜 서비스 제2의 보험입니다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80을 넘어 20년 후면 100세 시대에 도달한다고 한다.

전남도는 다른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으로서 전국에서도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져 수많은 질병과 질환 등 고독사로까지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책의 하나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에서는 119 안심 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19 안심 콜 서비스는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병력, 복용 약물 등의 의료정보를 119상황실에서 확인하고 출동 구급대원에

게 사전 제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선진형 119구급 서비스이다.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장애인, 홀몸노인, 외국인 등 서비스 가입 희망자 누구나(외국인 포함)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며 119 안전신고 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에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안전의 사각지대인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이웃과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농작 발견을 예방할 수 있는 119 안심 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박영남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治 大스릴 치 治本於農
 本 근본 본
 於 여조사 어
 農 농사 농

▷ 뜻 :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니, 중농 정치를 이룸.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